

해방 전후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민족의 의미

노연숙*

목차

1. 들어가면서-기억된 해방과 해방의 수용
2. 해방 전 민족을 위한 충성과 반역의 서사
 - 2.1. 수양에서 수행으로, 정(情)과 성(誠)으로 점철된 민족론
 - 2.2. 간통과 친일의 기억, 자의식과 죄의식 사이의 경계
3. 해방 후 고백되지 못한 ‘나의 악몽’과 관념 속의 민족
 - 3.1. 수행에서 화합으로, 중단된 애국의 논리와 좌절된 이상
 - 3.2. 은폐된 ‘나’의 실체와 민족을 향한 사랑의 호소
4.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해방 후 조선은 ‘대한민국’이라는 독립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일제 잔재의 청산 및 친일파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이광수는 민족의 반역자라는 죄목으로 반민특위법에 따라 검거되는 처지에 놓인다. 이광수는 비단 이 외부적인 사건뿐 아니라 민족적 규탄의 대상으로 많은 비판을 익히 받아온 처지였다. 특히 해방 후에 친일행적을 했던 이광수에 대한 비난은 극심했으며, 이광수 또한 자신의 과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해방 후에 이광수는 <나의 고백>을 통해 자신의 친일행적의 배경과 동기를 밝혀 놓았지만, 그 내용인즉 ‘친일은 곧 자기희생’이었다는 논의로, 자신이 애국자라는 명예를 버리고 조선민족을 위한 행동을 취했던 것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이광수의 태도는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수로

자이반성이 없는 비열한 변명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더 이상 이광수라는 이름을 전면에 걸고 문단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마저도 유지하기 힘들게 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은 익히 알려진 것으로, 본고에서는 해방 후에 이광수 문학이 해방 전의 행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무수한 죄의식과 무수한 고백의 포즈 그리고 미처 다 털어놓지 못했던 고통으로 얼룩진 악몽이 그의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이광수 스스로가 시인하고 싶지 않았던 죄의식과 그를 지탱하게 했던 민족적 자의식의 실체를 구명해 보고자 했다. 이광수는 변명으로 일관된 <나의 고백>을 집필하기에 앞서, 자신이 감추어 두었던 오래전의 간통사건을 <나(스무살고개)>를 통해 고백한 바 있다. 이광수가 해방 후에 자신의 자서전을 쓰면서 굳이 밝히지 않았어도 좋았을 간통사건을 굳이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유념해보면, 간통사건과 친일행적의 미묘한 연관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그것은 곧 ‘배신’이며 자신의 영역권의 ‘이탈’이라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이광수는 무수한 시간이 흐른 뒤에 겨우 운을 떼어 간통사건을 고백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친일행적은 그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이광수의 심적인 변민은 악몽으로 나타났는데, 그의 작품 <꿈>(중편)과 <세조대왕> 그리고 <원효대사>에는 각각 살인과 파계라는 죄를 저질렀을 때 발생하는 죄의식과 중압감이 서술되어 있다. 작품에서 이들은 악몽을 극복하기위해 불심을 빌려보지만, 불상마저도 흉악한 모습으로 변하는 공포를 겪는다. 이 좌절은 이광수의 자서전과 같은 단편 <꿈>에서도 나오며, 해방이 곧 그의 최대 악몽이라 볼 수 있을 만큼, 해방 후에 이광수에게 남은 것은 단지 불심과의 공명뿐이었다. 이광수는 민족적 수양이나 수행을 대신하여 민족 간의 사랑을 추구해야 할 가치로 제시해 놓았는데, 이는 그의 관심이 어디까지나 민족에 놓여 있었으며, 실패로 끝나버린 그의 좌절된 이상의 실체가 곧 민족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핵심어 이광수, 간통, 친일, 악몽, 사랑, 민족

1. 들어가면서-기억된 해방과 해방의 수용

1945년 8월 15일, 태평양 전쟁의 종결과 함께, 식민지 조선은 해방을 맞이했다. 익히 알려진 바, 해방은 오랜 기간을 통해 준비된 것이라기보다 기습적으로 찾아온 새로운 신호탄과 같았으며, 이를 기점으로 한 차례 지배구조가 전복되었다. 조선에서 해방은 일본에 의한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또 다른 외부세력의 개입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대한이라는 독립국으로서의 위치를 형식적으로 정립해주었다.

해방 이후에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해방 공간의 조선인들은 조선을 독립된 국민국가로 만들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기 시작한다. 그것은 단죄의 대상을 차단하고 식민국인 일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단절” 하는데 중점이 놓여 있었다.¹⁾ 이 과정에서 일본제국과 손을 잡았거나 그 수하에서 민족적 반역행위를 한 자들은 친일파라는 죄목으로 ‘민족적 단죄의 대상’이 되었다. 이 중에 본고에서 다룰 이광수 또한 해방과 함께 색출되어야 할 대상으로 검거된 바 있다.²⁾

1945년 8월 16일, 이광수가 기억하는 해방의 날이다. 이광수는 해방이 된 다음날, 조선이 광복되었다는 소식을 접한다. 당시 패전국인 일본의 국내사정도 그러했지만, 신문과 라디오 등 공중매체를 접하지 못하는 곳일수록 해방에 대한 소식은 늦게 전달되었고, 이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록도 제각기 달랐다.³⁾ 해방일이 15일로 규정되고 공포되는 순간, 이 날을 위한 기념비를

1)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해방 60년의 한국사회』, 한울, 2005.

허재일·정차근, 『해방전후사의 바른 이해』, 평민사, 1991, 103면. 일제 잔재 청산의 내용으로는 1) 일제 시대의 제도·기관 및 법률의 폐지, 2) 친일파 척결, 3) 일제 식민지 아래서의 언어·풍습·습관·가치 및 사상의 제거를 들 수 있다.

2) 허종,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선인, 2003, 409면. 해방 이후 이광수를 가두었던 <일제 시기 경력 및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다. <조선임전보국단 상무이사·전시생활부장, 조선문인보국회 이사, 조선문인협회 회장, 대화동맹 이사, 대의당 간부>

3) 元容鎮, 「1945年 8月 15日 朝鮮의 미디어」, 『メディアにおける 終戦・敗戦・解放』(國際

세워야 했고, 해방을 수용하기 위한 무대로서 민족을 위해 투신했던 이들을 앞세워 기리기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 이광수는 해방이 되던 해에 방문한 중국에서 이미 해방의 기운을 예감했지만,⁴⁾ 실제로 벌어질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했다. 오히려 믿기지 않는 현실과 충격을 감당해야 했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 ‘실감나지 않는 해방’을 즐기는 잔치가 아닌, 거대한 손님으로 맞이하여야 했다. 그것은 그가 해방 앞에서 고개를 들거나 당당할 수 없었던 처지에서 기인한다. 그 자신의 내부에서는 거대한 손님의 등장과 함께 균열이 발생한다. 이는 민족의 명분을 더럽혔다는 죄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자신과, 민족의 고통을 덜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친일을 했다는 희생자의 숙명이라는 간극에서 벌어지는 악몽의 재현이 그것이다.

해방의 수용단계에서 민족의 반역자라는 죄목에 묶여서 지난 과오를 반성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 이광수는, 그를 따르는 그리하여 그의 진실한 반성을 바랬던 당대인들에게 ‘예상 밖의 실망’을 안겨주면서까지, 그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이광수는 자신이 민족을 위한 행위, 즉 민족을 위한 친일을 통해 자기 희생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⁵⁾ 그리고 이러한 입장 표명은 비열한 변명으로⁶⁾ 이광수가 민족애(民族愛)에 대한 오독과 자기만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질타

シンポジウム), 東アジアメディア産業研究, 2006.12.2.

- 4)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숲, 1999, 376면.
 5) 정운현, 『잃어버린 기억의 보고서』, 삼인, 1999, 232면. 춘원은 특위조사관에게 이런 고백의 글을 바쳤다. “대동아전쟁이 일어나자 나는 조선 민족이 큰 위기에 있음을 느끼고 일부 인사라도 일본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 줌이 민족의 목전에 다가온 위기를 모면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왕 버린 몸이니 이 경우에 희생이 되기를 스스로 결심했다. 당시 정무총감 원등 등이 조선의 태도에 대불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생각다 못해 양주에 은퇴하여 해방을 맞이했다.” “동경까지 가서 학병을 강요케 된 건 학병을 나가지 않으면 학병을 가서 받는 것 이상의 고생을 할 것 같기에 나가라고 권했다. 동조동근론을 말한 것도 사실이다.” 춘원은 이렇게 고백도 했다. “나의 친일은 부득이 민족을 위해 한 일이다.”
 6) 이광수의 친일에 대한 변으로 간주되었던 글들로는, “해방 직후 『삼천리』에 실은 <나는 독립국의 자주민>이라는 글과 뒤이어 <나의 고백>, <친일의 변>, <꿈>, <스무고개>, <돌베개> 등”(김삼웅 외 편집, 『무크·친일문제연구3』, 가람기획, 1995, 38면, 98면) 해방 이후에 나온 출판물 대개가 친일행적에 대한 변명으로 치부된 경향이 있다.

를 끌어내었다. 이광수는 여러 차례 심문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불기소 처리되었고⁷⁾ 해방공간에서 배제되어 ‘해방되지 못한 몸’으로 사랑에서의 칩거생활로 다시 들어간다.

본고에서 일차적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해방 이후 이광수의 문학과 행적이 해방 전의 행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끝없이 배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해방 이후 이광수 문학이 해방 직전의 문학과 관련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성을 보이지 못하고 과거에 회귀하여 퇴보하거나 주춤거리고 있는 양상을 포착해보고자 한다. 이는 곧 이광수 개인의 문제적인 행적도 그러하거나 그의 작품과 잡문에서 그의 말을 빌려 “훼손”⁸⁾되었던 시기에 대한 상념이 지배적인 공간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반성 및 새로운 지향점을 추구하는 행로의 모색공간으로서의 해방공간을 구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전제하에 해방 전후 이광수 문학이 ‘악몽의 연작’이자 ‘친일행적에 대한 자의식의 표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해방 전후 그의 문학에 나타난 민족의 의미를 재구해보고자 한다. 이광수에게 있어 민족이란 그가 문학을 하는 이유가 되는 절대명제로서, 초기 그의 문학관에서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귀결점이자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부각된 바 있으며, 해방 후 그가 ‘민족을 위해’ 친일을 했다는 ‘가면을 쓴 정언명제’를 늘어놓을 수 있었을 만큼 그를 살리는 방편이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이광수가 친일에 대한 반성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하는 기존의 논의에 따라 그를 친일파라는 죄목에 가두어버리기보다는, 그 만의 가능성

7) 허중, 앞의 책, 228면 재인용. 이광수는 8월 24일 특별검찰부에 송치되어 8월 29일 특별검찰관의 투표에서 5대 4로 불기소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광수의 반민족행위가 무거웠기 때문에 再議에 붙혀져 8월 31일에 특별검찰관 7인의 합의로 이광수의 기소를 결정하였다. 담당 검찰관 이의식이 담당 서기관인 신현수에게 기소서류를 작성하여 이광수를 기소하도록 했으나, 친일파와 연결되어 있던 신현수가 8월 31일까지 기소하지 않아 불기소 처리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13, 2000, 664-666면).

8) 이광수, <나의 고백>, 『이광수 전집 7』, 삼중당, 1971.

즉 민족담론에서 민족적 경륜을 이루고자 했던 그의 좌절된 이상의 실체를 재검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민족에 위배되었던 그러나 민족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이광수라는 특수한 개인의 이상과 그 이상이 빚어낸 남겨진 작품들의 의미를 조합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했던 민족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2. 해방 전 민족을 위한 충성과 반역의 서사

2.1. 수양에서 수행으로, 정(情)과 성(誠)으로 점철된 민족론

해방 이후 이광수는 의심할 여지없는 자신의 신념, 민족에 대한 절대적인 ‘개량(改量)의 신념’을 외압적인 시세에 따라 수그러야 했다. 1949년 반민특위법에 의해, 그가 재판장에 서서 항상 대면해야 했던 것은 조사관의 질책 속에 거론되는 香山光郎(かやま みつろう)이라는 ‘신민화되었던 또 다른 자아’의 모습이 었다.

“이름은?”

“이광수요”

“또……?”

“춘원이라는 아호가 있습니다만……”

“그럼 香山光郎이란 누구인가?”

이때 그는 백짓장같이 창백한 얼굴이다.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한다.

“일제 때 잠시 붙인 이름이지 이광수가 본명입니다.”

“일제 때 무슨 일을 했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고백서를 쓸까 합니다.”

“쓰는 건 별도로 하고 대답을 하라”

“내가 친일한 것은 표면상 문제이고 나는 나대로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것이외다.”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뜻은 무엇인가. 감옥이 무서워서 인가? 아니면 잘 살아보고자 반역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뜻인가?”

“너무 할 말이 많아서 말로 대답하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⁹⁾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광수는 친일할 수밖에 없는 그 나름의 사정에 의해, 필연적으로 친일을 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가 심문을 받을 때는 이미 <나의 고백>(1948.12)을 통해 미리 그를 향해 쏟아질 질문에 대한 예비답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였으며, 그는 심문의 과정에서 그 ‘예정된 고백’을 그대로 되풀이한다. 이광수는 <나의 고백>을 통해 무려 7개의 사안과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친일의 정당성을 설파하는데,¹⁰⁾ 일본의 지배와 협력을 민족수양과 발전의 기회로 보고 협력만이 민족의 수난을 덜 수 있는 길이라 보았던 사고에는 무수한 자기모순이 발견된다. 특히 제국을 최상의 대상으로 보면서, 내선차별을 없앨 수 있으리라 장담하는 부분은, 이미 차별이 전제된

9) 李丙壽 외, 『解放二十年史』, 希望出版社, 1965, 281-282면.

10) <나의 고백>에서 이광수가 협력했던 이유로 밝히고 있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1. 물자 징발이나 징용이나 징병이나, 일본이 하고 싶으면 협력 여부를 불구하고 강제로 할 것임.
2. 어차피 당할 일이면 자진해서 협력하는 태도를 하는 것이, 장래에 일본에 대해 우리의 발언권 확보가 가능.
3. 징병이나 징용 등 억지로 끌려가기 보다 자진해서 가는 편이 대우가 나을 것임.
4. 징병이나 징용은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며, 이 기회에 산업 훈련과 군사 훈련을 받아 실력 쌓은 편이 나음.
5. 수십만의 군인을 내어보내면 일본이 우리를 학대하지 못하고 내선 차별의 폐해도 없앨 수 있을 것임.
6. 일본이 승전한다면, 우리는 일본인과 동등한 평등권을 얻을 수 있을 것임.
7. 일본이 패전한다 해도, 식민지 상태인 조선이 일본에 협력한 것이 문제요소가 되지 않음.

식민지 정책의 논리를 간파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의 논리에는 마루야마의 말을 빌려 “기가 약한 지식인” 특유의 약점이 들어가 있다.¹¹⁾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시키는 데서 발생하는 굴복감마저도, 굴복을 굴복이라 여기지 않고 민족적 발전의 방편으로, 자신의 논리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러하다. 이 안에서 최소한 지켜야 할 민족적 자존심을 버린 채 대동아공영권에 협력했던 행로는, 민족(개조)론과의 절단이 아니라 민족발전(수양)론의 연속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해방 전에 ‘협력해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논리는, 해방 후에 ‘국가의 죄인이라도 용서(수용)하지 않으면 국가만 손해다’라는 타산적 민족감각으로 연결되었다. 이는 그에게 체화된 민족의식이 다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산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나의 고백>에서 말하는 이광수 자신이 민족의식을 품게 된 경위와 변모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다. ‘민족의식 형성(일아전쟁/도산/동학/삼일운동)→민족운동의 실천/애국자 양성(오산학교 교사생활)→망국민의 슬픔(한일합병)→민족의 실력양성(생활개선/정신수양)→방랑/상해 및 해외 행(오산학교 떠남)→해외 독립운동에 대한 회의(귀국)→민족전체를 생각하는 수양(수양동맹회 결성)→민족주의 노선 자칭 및 물의(민족개조론)→민족운동의 퇴보(만주사변 이후 국민정신 총동원 연맹)’로 압축해 볼 수 있으며, 본격적인 친일의 계기는 아래의 문장에서 볼 수 있다.

비록 정치적인 모든 색채를 다 떼고 순전히 청년 수양·농촌 개발·출판 사업·산업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일본 관헌은 필시 우리의 속 뜻을 의심하여서 몇 번이고 신민회·동우회 사건 같은 것을 만들리라고 생각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2)조선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믿었고, …나는 4)나 하나를 희생함으로써 이 자유를 건질 수 있다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동우

11) 마루야마 마사오, 「‘현실’주의의 함정」, 『현대정치 사상과 행동』, 한길사, 1997, 226면.

회의 사업과 동지들을 살리고 싶었다. 그러나 내 3)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황군 위문사’를 보내는 회였다. …문단의 총의인 것을 보이기 위하여 그날 모임을 만들었고, 앉고 숨어 있는 나까지도 끌어 내린 것이었다. 이것이 내가 이른바 1)일본에 협력하는 일에 참여한 시초였다. …문인의 단체를 만들어서 연맹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필시 대탄압이 오리라 하고, 문인의 단체만 만들면 시오바라가 후원한다고 하며 내게 의향을 묻기로, 나는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이 나의 두 번째 궤절이었다. (번호첨가는 인용자)

제시된 위의 인용문은 1)이광수가 친일을 하게 된 경우, 2)친일하기 시작했을 때의 윤리적 갈등과 책무, 3)해방 후 친일행적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그리고 4)자신도 모르게 ‘신념화한 친일행적’에 대해 전면 부정/거부할 수 없는 자의식 등을 보여준다. 동우회사건으로 검거된 바 있는 이광수는, 일제의 방침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체포’하는 일방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민족의 정신력과 연결된 문화 사업(교육, 언론, 출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굳힌다.

이광수의 예상에는, 문화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자유획득을 위해서는 일제의 침략정책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으며, 이 ‘협조의 제스처’는 내부적으로 반역자라는 불명예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광수는 이를 끝없이 의식하고, 그를 궁지로 모는 이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민족’이라는 기치를 내세운다. 이에 따르면, 민족을 위한 반역이며 민족을 위한 희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족을 위한 충성을 했다는 ‘관념 속에 놓인 민족을 향한 단일 노선’이 성립하게 된다. 이상은 이광수의 논리에 따른 결과이다.

이광수의 친일문학은 문제적인 영역으로 기존의 연구사에서 많이 거론된 바 있으며, 이광수 개인의 부조리함과 왜곡된 민족성이 비판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¹²⁾ 이광수의 친일행적은 곧 민족에 대한 배반이며, 변절자라는 꼬리표를 떨 수 없게 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 가운데, 이광수의 민족운동론이

수양에서 수행으로, 유동적인 양상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고찰한 연구가 있다.¹³⁾ 본고에서는 이 지적을 발전시켜, 수행에서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까지 살펴볼 것이다. 일단 이광수가 민족개조론을 통해 전면에 내세운 수양론에 이어, 반대 방향으로 꺾어져 버린 수행론으로의 진입과정을 대별해 보도록 하겠다.

1) 民族의 盛衰興亡이 實로 그 民族性에 달린 것이외다. 그러므로, 一民族을 改造함에는 그 民族性의 根柢인 道德에서부터 始作하여야 한다 함이외다. … 朝鮮人은 決코 帝國主義的·軍閥主義的 國民은 되지 못합니다. 宗教的으로 우는 民族, 哲學的으로 陰沈하게 思索하는 民族도 되지 못합니다. 朝鮮人은 現實的·藝術的으로 웃고 놀고 살 民族이외다. … 그러므로 우리의 改造할 것은 朝鮮民族의 根本의 性格이 아니요, 르봉博士의 이른바 附屬的 性格이외다. 그리

-
- 12) 이광수의 전체주의적 내셔널리즘 및 친일문제와 관련한 글로는 다음과 같다.
 최주한, 「1930년대 전반기 이광수의 지도자론과 파시즘」, 『어문연구』 제35권, 2007.
 박찬승, 「20세기 한국 국가주의의 기원」, 『한국사연구』 117, 한국사연구회, 2006.
 박은희, 「황민화의 환상, 오도된 계몽」, 『민족문화논총』 제31집, 2005.
 김예림, 「이광수의 미 이념」, 『작가세계』 여름호, 2003.
 황병주, 「전시 체제가 이광수의 전쟁·국가 인식과 식민 담론」, 『TRANSTORTA』 제3호, 박종철출판사, 2003.
 조관자, 「‘민족의 힘’을 욕망한 ‘친일 내셔널리스트’ 이광수」, 『당대비평』 특별호, 2002.
 이준식, 「일제 강점기 친일 지식인의 현실 인식」, 『역사와 현실』 37, 한국역사연구회, 2000.
 권혁웅, 「이광수 소설에 내재한 친일의 논리」, 『어문논집』 39, 안암어문학회, 1999.
 김재국, 「춘원의 민족주의 한계」, 『어문논총』 제11집, 1995.
 이경훈, 「춘원의 친일문학 연구」, 『비교문학』 제8호, 1994.
 이동하, 「이광수와 채만식의 해방기 작품에 대한 연구」, 『배달말』 제16호, 배달말학회, 1991.
- 13) 김동명, 「일본 제국 지배하 이광수의 민족정체성 : 문명한 민족에서 황국신민으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이제 개인을 국가목적에 적합한 국민의 일원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춘원의 글에서 몸과 마음을 닦아 품성이나 지식, 도덕심 따위를 높은 경지로 끌어올린다는 뜻의 이전에 개인들의 도덕적이고 내면적인 ‘수양’이라는 개념은 점차 사라지게 되고, 단지 계획대로 일을 해낸다는 의미의 ‘수행’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됨을 발견할 수 있다. 67면.

할진댄 우리의 改造運動은 더욱 可能性이 豊富하다 할 것이외다.¹⁴⁾

2) 民族은 運命이다. 아무도 民族의 範圍에서 超脫할 能力을 가지지 못한다. … 民族의 本質은 人類의 記錄에서 보는 限에서는 不變이라 할 것이다. … 言語는 그 民族의 魂이다. … 왜 그런고 하면 우리 말의 마디마디에는 民族의 歷史와 文學의 모든 聯想이 包含된 까닭이다. … 民族의 말은 곧 그 民族의 魂이어서 民族의 本質의 要素中에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 朝鮮民族의 宗家로 歷史의 榮譽를 지니고 온 이는 高句麗였다. 新羅는 愛國心에 있어서는 恒常 反逆者요, 罪人이었다. 異族을 끌어들이는 것은 新羅主義라 할 것이다. … 朝鮮人의 固有한 思想을 破壞하는 同時에 또는 그 方便으로 朝鮮語를 彈壓하고 賤視하여 이것의 滅絶을 期하였다. 이 大罪를 犯한 者는 누구냐 하면 그것은 民族意識을 磨滅함으로 自己네의 地位를 保全하려 하던 兩班, 儒林階級이었다.¹⁵⁾

이광수에게 민족은 강인한 애착의 대상이었다. 나라의 비운과 맞물린 그의 가정사의 비극도 그러했거니와, 이광수 자신은 오로지 민족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과 자부심속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다. 일명 “애국지사”¹⁶⁾라는 새로운 중추계급의 선두가 되고자 했던 것이다. 10년대에 지덕체(智德體)의 논의 및 정(情)의 육성을 주장했던 이광수의 논의는,¹⁷⁾ 20년대에 들어 세계적으로 특히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개조논의를 빌려,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중추계급 양성의 필요성 및 이에 미치지 못하는 조선민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이외 익히 밝혀진 것처럼, 민족의 도덕성과 윤리성의 개선을 강조했던 『민족개조론』은 20년대 도산이 이끈 흥사단의 이념과 맞닿아 있었으며,

14) 『民族改造論』(『開闢』, 1922.5), 『이광수전집 10』, 삼중당, 1971, 127-131면.

15) 『朝鮮民族論』(『東光叢書』 1, 2권, 1933.6-7), 『이광수전집 10』, 삼중당, 1971, 215-218면.

16) <나의 고백>, 『이광수 전집 7』, 삼중당, 1971.

17) 『今日 我韓 靑年과 情育』, 『대한홍학보』 10호, 1910.2(『이광수전집 1』, 삼중당, 1971, 525-526면).

민족적 힘을 기르기 위한 수양에 대한 사항은 중요한 덕목으로서 강조된 바 있다.

1) ‘결코 제국주의적 국민’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민족에 대한 진단은 30년대 후반에 들어 급변한다. 이는 이광수에게 있어 민족적 전망의 상승으로, ‘조선민도 제국의 적자가 될 수 있다’는 논의로 변모한다. 그 중간지점인 3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2) ‘민족의 본질은 불변’하는 것으로, 민족의 정신과 관련된 자국어를 강조하고, 외세지향적인 성향을 보였던 신라를 사례로 자국정신에 위해를 가하는 무리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러했던 이광수의 논의는 조선민족이 일본제국속에 잠식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선민족을 일본민족으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체감한다. 이제 독립을 위한 실력양성이 아닌 제국의 모방을 위한 공부와 수행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수행은 무엇이며,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1) 수행의 안목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성(誠)의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일언 일구,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성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다. 확호한 신념을 파악하여 사생고락(死生苦樂)을 문제삼지 않고, 스스로 소신을 향해 매진하는 것이다. 신도(神道)에서 말하는 청명심(淸明心), 또는 정명진심(淨明眞心)이란 즉 이러한 성(誠)이며, 불교의 불(佛) 역시 이 성(誠)이다. 성이 없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것은 거짓이며, 의심이며 반복(反覆)이다. 격조가 없으며 엉터리다. 임시변통이며 기회주의이며, 요행론자, 우연신자(偶然信者)이다.¹⁸⁾

2) 지나사변 이래 미나미 총독 정치의 내선일체 관념에 있어서 이는(조선의 문화적 요소 유지·필자) 용인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조선인은 민족이라는 관념을 멋지게 청산하여 모든 조선적인 것으로부터 일단 이탈하여 백지로 돌아간

18) 『속·반도의 형제 자매에게 보냄』, 『신시대』, 1941.11.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Ⅱ』, 평민사, 1995, 309-310면.

후 황국신민으로서 다시 시작한다 하는 방침처럼 해소된다. 바꿔 말하면 조선인은 단지 일본 국민이 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야마또(大和)민족이 된다. 그래서 완전히 평등한 국민으로 융합한다는 식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호소에 대해 조선인은 철할 구분 오리의 창씨개명으로써 응했던 것이다. 즉 좋다, 우리는 야마또 민족에 융합해 들어가자고 했던 터이다. 이제 한 번 더 바꿔 말하면 조선 민족은 야마또 민족에 스며들어감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자, 영원한 번영을 도모하자고 마음먹었던 것으로, 소위 민족의 발전적 해소를 단행했던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 조선 민족은 혈액적으로 정신적으로 병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¹⁹⁾

1) 수행은 정(情)에서 더 나아가 성(誠)을 지닌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 수행은 기존의 자신을 버리고 일본정신으로 채우는 일이며, 신성한 일본국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많은 고행과 피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일본국으로부터 차별이나 배제를 받는 것은, 완전한 황국신민이 되기 위한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²⁰⁾ 이러한 수행만이 식민지 · 약소국 · 패전국이라는 민족적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²¹⁾

19) 『조선문예의 금일과 명일』, 『경성일보』, 1940.9.30, 이경훈 편역, 앞의 책, 119면.

20) “조선인이 거짓말쟁이라든지 음험하다고 말해지는 것은 틀림없이 슬픈 일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사람들 눈에 비추어졌다면 그것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므로 자기를 반성할지언정, 그렇게 보아 주는 사람들을 원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크게 수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총독부에서는 국민총훈련이라합니다만, 우리 자신도 수련도장에 있는 마음가짐으로 수련합시다. 모든 음험한 사고방식을 오오하라이 대신에게서 씻을 받고, 깨끗하고 밝고 곧은 마음이 될 때까지 수행을 쌓읍시다. 우리가 개방적으로 믿음직하고, 또 정과 사랑이 넘치는 명랑한 일본인이 되는 것을 즐겨워 해주십시오”(〈행자〉, 『문학계』, 1941.3, 위의 책, 80-87면).

21) “朝鮮人은 이제는 決코 植民地人이 아니다. 弱小民族도 아니다. 敗戰國民도 아니다. 威勢가 隆隆한 大日本帝國의 臣民이다. 이것은 決코 虛張聲勢가 아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제 부터는 우리 自身의 力量 如何로는 日本帝國의 모든 事業과 모든 榮光에 參與할 수가 있게 된 것이 아니냐. 느저도 三十年 後의 朝鮮人의 子孫은 朝鮮人이라는 悲哀를 맛보지 아니할 것이오 內地人의 子孫인 日本人과 完全히 平等되고 完全히 融合한 그야말로 누가

2) 이광수가 창씨개명의 계기로 어떠한 신념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표명하
 바, 그 신념은 다름 아닌 야마토(大和)민족으로 융합해 가고자하는 의지이다.
 이광수가 일본의 신민이 되기로 한 배경에는 단순히 개인의 욕망에 천착한
 것이 아니라, 일본민족을 최상의 민족, 즉 세계민족을 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민족단위로 보고 당연히 이에 들어서기 위한 관문으로 ‘조금 더 천황의 신민답
 게’ 그의 성명을 고치고²²⁾ 일본인이 되기 위한 수행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민족관념의 대전환이 뒤따른다.

조선인은 기존의 민족 관념을 청산하고 황국신민이 된 뒤, 더 나아가 야마토
 민족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아야한다. 왜냐하면 일본민족은
 좁은 의미에서의 일본인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한 지붕으로 삼는
 보편성과 진리성을 지닌 민족이기 때문이다. 일본정신에는 동아시아를 비롯
 하여 세계를 구원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하는 그 이상의 것이 깃들어
 있다.²³⁾

이상, 이와 같은 논의들은 해방 전까지 이광수의 논설뿐 아니라 소설과
 시 그리고 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논리였다. 여기서 다시 되짚어볼만
 한 사항은 이광수가 진정으로 내선일체에 동조했느냐는 점이다. <나의 고백>
 에는 일차적으로 조선민족을 염두에 두고, 조선민족을 위한 친일의 포즈를
 취했다는 논리가 피력되고 있으나, 이광수가 자신과 그의 아들의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개명했을 때는, 그 안에 ‘결코 해방은 되지 않으리라’는 또는 ‘정말

누구인지 모르는 同胞가 되어서 榮光을 享受할 것이다”(〈황민화와 조선문학〉, 『매일신보』, 1940.7.6. 앞의 책, 76-77면).

22) “내가 香山이라고 氏를 創設하고 光郎이라고 日本的인 名으로 改한 動機는 惶悚한 말씀이
 나 天皇御名과 讀法을 갖치하는 氏名을 가지자는 것이다. 나는 김히김히 내 子孫과 朝鮮
 民族의 將來를 考慮한 뜻해 이리하는 것이 當然하다는 處는 信念에 到達한 까닭이다.
 나는 天皇의 臣民이다. 내 子孫도 天皇의 臣民으로 살 것이다. 李光洙라는 氏名으로도
 天皇의 臣民이 못 될 것이 아니다. 그러나 香山光郎이 조금 더 天皇의 臣民다움다고 나는
 밋기 재문이다”(〈創氏와 나〉, 『매일신보』, 1940.2.20, 이경훈 편역, 앞의 책).

23) 『내선일체와 국민문학』, 『조선』, 1940.3. 위의 책, 71면.

로 일본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강인한 확신과 절체절명의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확고한 민족의식은 이로 인해 거대한 상승(조선민족→일본민족→야마토 민족)을 이루며, 민족적 퇴락이라는 치명적인 손실/하강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자신의 인위적인 신념과 별도로, 조선민족이라는 타고난 숙명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그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자의식에서 자유롭지 않았으며, 일본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끝없는 구호 속에 어디까지나 조선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세대적 비애감을 맛보고 있었다. 자신의 세대에서 일본인과 하나가 되면, 그 다음 세대에는 이러한 비애감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를 반증해준다.

이광수는 민족적 수난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학정 출병 등 친일협력의 행위를 했고, 그것만이 자신이 조선적 자아를 버리고 할 수 있는 책무이자 희생적 발로였다고 주장했다. 해방 이후 당위적 명제가 비열한 명분으로 바뀌고, 절대적 신념과 이상의 실현을 추구해 나갔던 야심이 자기희생이라는 숭고함으로 대체되어야 했을 때, 이광수의 세계는 분열과 파편의 조합에 지나지 않았다. 이미 논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2.2. 간통과 친일의 기억, 자의식과 죄의식 사이의 경계

해방 후 그를 지배한 것은 친일 행각에 대한 자의식과 변민이었다. 이광수는 그 자신을 회고할 때 그 자신을 곧 ‘변민의 주체’로 규정했듯이, 끝없는 심적 갈등과 변민의 연속을 그의 자서전에서 펼쳐놓았다. 일명 이광수의 자서전 시리즈를 ‘번뇌의 연작’이라 묶어볼 수 있다면, 그의 자서전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픽션으로서 평가된 바 있는 역사/전기의 작품들을 ‘악몽의 연작’으로 범주화시켜 볼 수 있다. 전자에는 <나>, <나의 고백>, <돌베개>, <일기>, <그의 자서전>, <인생의 향기>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꿈>(중편), <원효

대사>, <세조대왕>이 있다. 이들 작품은 공통적으로 끝없는 번민과 그로 인한 악몽의 재현을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세파에 자유롭지 못했던 이광수의 자의식과 번민으로 점철된 죄의식의 중간지대를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²⁴⁾

해방 이후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과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광수는 대략 2년간 침묵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가 몸을 농토에 맡긴 채 입을 닫았던 시간을 열고, 다시 집필활동에 들어간 뒤에도 주로 쓰기 시작한 것이 산문 등의 잡문이다. 특히 ‘자서전 시리즈’는 그의 행적을 돌아보는 여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친일행적은 겨우 <나의 고백>에서만 그것도 두 장에만 씌어있어 실망을 준 바 있다. 이광수의 침묵은 자신의 안위보전과 최소한의 참회를 위한 시간이었으리라는 기대 또한 비껴나갔다.

이광수는 당대인들이 기대했던 ‘고백’과 ‘참회’ 그리고 ‘반성’과 ‘후회’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은 이광수가 자신의 행위를 끝까지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게 했으며, 그가 신념이라 불렀던 황국운동이 모두 허상임이 드러난 뒤에도 자신의 신념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했다는 강한 자의식을 보여주기 에 충분했다. 요컨대 그는 자의식의 세계 속에 갇혀서 민족 앞에 사죄를 하는 등의 퍼포먼스를 뒤로 한 채, 봉선사에 칩거했다. 그에게는 자신에 대한 강한 확신과 자의식 뿐, 죄의식은 없었다. 그의 논리 속에서 그는 죄인이 아니라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이광수의 빈곤한 유년기의 체험도 그러했지만, 스스로 자립한 뒤에도 그의 자리를 찾아나가는 여정은 많은 번민이 뒤따르고 많은 시험이 닦쳐왔다. 이광

24) <나>가 자책감과 관련되었다는 논의로는, 최주한, 『자전소설 <나>의 ‘참회록’으로서의 성격』, 『제국 권력예의 야망과 반감 사이에서』, 소명출판, 2005. 그리고 <꿈>이 죄의식을 다루고 있다는 것으로, 심원섭, 『이광수의 菩薩行 誓願과 親日의 問題』, 『翰林日本學研究』 제7집,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2002와 한승옥, 『이광수』, 건국대 출판부, 1995 참고.

수가 자신의 친일행적에 대해 언급해야 할 대목에서, 그 자신이 일생에서 가장 수치로 여기는 그리고 떳떳하지 못했던 기록으로 간통을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 면에서 시사적이다.

<나(스무살고개)>(1948)에서 오산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던 무렵, 이광수는 문의 누님과 간통하게 된다. 한창 기독교와 톨스토이주의에 열성이었던 이광수로서는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한 것이라 자책한다. 아내가 친정에 가고 없는 틈에 그의 집에서 시중을 들었던 문의 누님은 이광수에게 거대한 시험의 대상이었다. 한번 죄를 지었으니, 두 번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의지는 밤새 이광수를 잠 못 이루게 했다.

순박한 아내와 자신을 유혹하는 문의 누님 사이에서 이광수의 번민은 간통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그 이후 틈틈이 그를 제압하는 죄의식과의 싸움에서 철저한 패배를 당한다. 죄의식 속에서 그의 번민은 더욱 과증되는데, 이광수에게 간통은 그 자신이 ‘더러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으로, 사랑을 갈구하고자 했으나 결코 사랑을 획득할 수 없었던 ‘극도의 외로움과 고독에 빠진 자아’에 대한 비애감마저 담고 있다. 친일 또한 일종의 ‘민족적 간통’으로, 간통과 친일은 자신의 욕망에 따른 행위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자신의 영토권(아내와 조선민족)을 버리고 다른 이에게 마음을 두었던 행위는 그가 그의 의지대로 선택하지 않은 아내와 민족을 버리고, 그의 욕망과 의지로 운명을 바꾸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광수의 자서전은 ‘왜 우리 집은 가난한가’, ‘왜 우리 아버지는 못났나’, ‘왜 나리는 약한가’, ‘왜 나는 보다 매력있고 강한 것을 선호하는가’하는 선택하지 않은 열악한 외부조건과 그래서 더욱 취하고 싶은 우월한 요소들에 대한 선망을 표명하고 있다. 더 강한 것을 선호하는 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욕망이라 볼 수 있는데, 이광수는 이러한 것을 부정하고 조금 더 숭고하고 순수한 세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성향이 그가 조금만 어긋났을 때, 그를 더욱 죄의식 속에 가두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전후에 나오는 실단이와의 일화는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사랑’ 처음 가져본 ‘좌절된 순정’으로 포장된 첫사랑의 일지이다. 그는 실단이를 마음에 두었으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가난에 대한 변민으로 인해 실단이를 불행한 결혼으로 밀어버렸다고 자책한다. 나중에 다시 조우하게 된 과부 실단이는 이제 예전의 순수한 실단이가 아니라 남의 아내였던 여자라는 의식 속에 다시금 밀어내게 된다. 이렇게 실단이를 밀어내는 모습은, 그가 과도한 순결 지상주의자였다는 것, 그리고 차후 함께 할 사람으로 자신과 격이 맞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나중에 듣게 된 실단이의 자살소식은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던 자신을 다시금 자책하게 한다.

<그의 자서전>(1937)에서 특히 길게 서술된 치타행과 (허영숙을 가장한)두 여인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와 생활하는 모습은 사회적 비난의 시선 속에서 그 스스로가 지키고자 했던 열정과 순결에 대한 의지를 그려놓고 있다. 치타에서 만난 두 명의 여인의 보호자가 된 이광수는, 두 명의 애첩을 거느리고 산다는 악의적인 소문과 질시의 시선 속에서 수난을 겪는다. 이광수는 끝까지 이들을 지켜주는데, 가공의 인물인 두 여인은 이광수의 헌신 속에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가 학업을 위해 다시 동경에 건너갔을 때, 잠시간 떠말게 된 (나혜석으로 추정된)C양과의 일화도 그가 유혹을 이겨내고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컨대 이광수와 이 여인들과의 관계는 이광수 자신의 자신감 획득의 여정을 보여준다. 세파의 시선과 달리 이 여인들과의 관계는 순결했으며,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약속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문의 누님과 그의 일이 그를 바닥으로 추락시켰다면, 세 여인(마야가릿, 엘렌, C양)과의 일은 그를 회복시켰으며, 실단이와의 추억은 ‘그의 유약함’과 ‘극복의 여정’이라는 두 측면을 보여주는 중간점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그의 행위에는 무수한 번뇌가 수반되었으며, 행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추구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악몽’이 재현되었다. 번뇌가 악몽을

낳기도 했으나, 떳떳하지 못한 행위의 기억은 그의 일생을 지배하는 어둠, 즉 악몽이 되어 나타났으며, 악몽의 극복방법은 오로지 망각뿐으로, 영원한 제거는 불가능했다.

이광수 자신이 잊고자했던 과거의 기억은 현재의 악몽으로 나타났으며, 그 악몽은 이광수 자신이 번뇌의 운명에서 헤어날 수 없음을 냉혹한 현실보다 앞서 시사해 주었다. 꿈이 깬 뒤에 흘리는 그의 식은땀은 자신이 밀쳐두었던 과오를 반성케 한다. 그는 이를 업보라는 불교의 순환논리로 체화하여, 악연으로 맺어진 자신의 지난날이 결국은 그 스스로 짓값을 치르게 한다고 보았다. 가령 허영숙과 재혼하여 얻은 아들 봉근의 죽음은 첫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첫 아이의 죽음과 연관되며, 첫 아이에게도 무심했던 자신의 과오는 이렇게 업보로 되받게 되는 것이라 체득하기도 하는 것이다.²⁵⁾

해방 후에 그의 친일행적을 사죄하는 대신에, 아무도 그를 질타하지 않았던 간통사건을 고백하는 것은 미묘한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양심이 허용하지 못하는 부분, 그 자신이 순간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던 실수를 수십 년 뒤에 겨우 운을 떼어 고백했다. 아마 친일행적에 대한 고백은 그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즉 <나의 고백>(1948.12)은 <나스무살 고개>(1948.10)에서처럼 죄의식과 번뇌를 드러내는 것과 달리, 자의식과 죄의식 사이에서 오가는 미묘한 포즈를 되풀이하는데 그치고 있다.

3. 해방 후 고백되지 못한 ‘나의 악몽’과 관념 속의 민족

3.1. 수행에서 화합으로, 중단된 애국의 논리와 좌절된 이상

이광수의 악몽은 해방이 되었을 때 현실로 나타났으며, 그의 악몽은 ‘조선

25) <인생의 향기>, 『사해공론』, 1936.9(『이광수 전집 8』).

전'을 토대로 한 <꿈>과 수양대군을 형상화한 <세조대왕>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세조대왕>(1940)은 <꿈>(1947)과 <원효대사>(1942)의 중간지대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세조대왕> 속에 '조신전'의 일화가 언급되고 있으며, 단종을 죽였다는 죄의식이 악몽으로 나타나는 대목은, 항상 불안에 쫓기는 신세가 된 조신의 운명과 상통한다. 그리고 <세조대왕>의 수양대군과 <원효대사>의 원효의 시련과 극복의 여정은 이광수의 또 다른 자서전의 일부를 이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²⁶⁾ 이는 왕실의 정통성에 위배된 행위를 한 수양대군의 변민, 요석공주와의 일로 인해 파계승이 되어 떠도는 처지가 된 원효의 변민과 민생의 안위와 중생의 구제를 위해 헌신하고자 했던 이상의 실천적 면에서 이광수의 개인사를 과대평가한 결과로 보인다.

중편 <꿈>은 조신이 혼사를 앞둔 사또의 딸과 도망하여 산속에서 살다가, 그를 찾아와 협박하는 평목을 죽이고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아들을 잃고 죄도 발각되어 몰락하게 되는 여정을 담고 있다. 요컨대 <꿈>은 보다 민중적인, 그리고 평범한 개인의 욕망에 천착한 작품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조신의 악몽이다. 조신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늘 꺼림칙한 악몽에 시달린다. 살인을 합리화하고 애써 잊어보려 하지만, 죄의식과 두려움이 커갈 뿐이다. 살기위한 방편으로서의 살인이었으나 살인이후에는 악몽과 죄책감으로 인해 그 자신이 더욱 피폐해져 간다.

조신은 아무리 하여서라도 관세음보살상을 뵈오려 하나 나오는 것은 무서운 형상뿐이었다. 눈망을 툇 불거진 사천왕상이 아니면 머리에 빨돋힌 염라국 사자의 모양뿐이었다. 가사와 장삼이 어지럽게 너푼거리던 어두움 속에, 눈망을 불거지고 빨돋힌 귀신들, 머리 풀어 헤치고 입에서 피 흘리는 귀신들이 어지러이 나타나서 조신을 노려보았다. 다음 순간에 조신의 눈앞에는 이글이글 검푸른

26) 박종화, 『세조대왕-해설』, 『이광수 전집 4』, 612면; 이병주, 『원효대사-해설』, 『이광수 전집 5』, 604면.

불이 타는 불지옥과, 지글지글 사람의 기름이 끓는 큰 가마며, 입을 벌리고 혀를 잡아당기어서 자르는 광경이며, 기름틀에 넣고서 기름을 짜듯이 불의한 남자를 눌러 짜는 광경이며, 이 모양으로 모든 흉물스러운 광경이 보이고, 나중에는 평목이가 퍼런 혀를 빼어 물고, 손에 제가 목을 매어 죽던 깃나뭇잎을 들고 나타나서 조신을 향하여 손을 허기는 것이 보일 때에 조신은 배개에 두 눈을 비비며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²⁷⁾

조신은 평목의 시체를 치우고 살인의 증거품을 제거하려 하나, 그를 따르기 시작한 죽음의 그림자 앞에 속수무책일 뿐이다. 산 속에서는 물론, 방 안에 들어서도 평목의 죽은 영상이 떠올라 괴롭고 불심으로 이를 잊어보려 해도 도리어 불상의 얼굴이 무섭게 비치어 그를 압박할 뿐이다. 이러한 불안의 영역은 조신이 죄가 발각된 후에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변명을 일삼다가, 끝에 가서야 비로소 진심어린 반성을 하는 대목에서 끝이 난다. 그가 그의 죄값을 받기로 결정한 순간에 용서를 받게 되고 꿈에서 깨어나게 된 것이다.

개인의 영달과 인생의 향락이 한낱 꿈(그것도 악몽)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된 조신은 이후로 불도에만 매진하여 조신대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일화는 <세조대왕>에서도 언급된다.²⁸⁾ <세조대왕>에는 <원효대사> 못지않게 부처의 자비심과 불교의 세계가 강조되어 있다. 세조는 마음의 번뇌를 털어내고 미움을 화(和)로 바꾸는 힘은 오직 부처님에게서 구할 수 있다고 믿고, 그 스스로 죄의식과 악몽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부처의 설법을 듣고자 한다. 조신이 이들을 잃었을 때도 그러하지만 세조 또한 세자를 먼저 보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업보로 빚어진 일이라 여긴다.

27) <꿈>, 『이광수 전집 5』, 564-565면.

28) 세자는 조신이 죄로 인해 부스럼을 앓고 비참하게 살았다는 대목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세조가 원인모를 부스럼에 시달리는 것이 연상되어 잠시 마음이 괴롭다가도 결국은 조신 이 꿈에서 깨어 관세음보살님의 은혜를 받아 불교계에 대업을 이루었다는 결과에 만족해 한다.

첫 동궁이 돌아가신 이후로 오래 안 보이던 문종의 왕후와 노산(단종)이며 혜빈양씨가 다시 꿈에 보이기 시작하였다. 벌써 이십년이나 된 일이언마는 현덕 왕후 끈씨의 모양이 꿈에 보이면 상감과 같이 장령이 세이신 어른으로도 모골이 송연함을 금할 수가 없으셨다. 현덕 왕후 구너씨는 아직 세자빈으로 겨우 스물 네 살에 아드님(단종)을 낳으신 지 이틀만에 돌아가신 이이다. ‘네가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였겠다.’하고 몸을 떨며 이를 가는 꿈이었다. 이 꿈은 상감이 임금 이 되신 다음 해 겨울 어느 날, 상감이 낮잠을 주무실 때에 처음 꿈 뒤로 그동안 꿨었다가 상감이 이번 병드신 때에 다시 꾸게 되신 것이었다. (….) 상감의 병환이 침중하실수록 무서운 꿈이 잦았다. 상감은 침실에 관세음보살 탕상을 모셨으나 그 자비로우신 관음상까지도 때로는 무서운 현덕왕후의 원망에 찬 형상이 되는 것이었다. ‘죄 많은 눈에는 극락이 모두 지옥이요, 업장을 벗은 눈에는 지옥도 모두 극락이라.’ 하는 말이 옳다고 상감은 생각하셨다. “오냐. 내가 받을 업보는 서슴지 않고 다 받오마.”하고 비장한 결심을 하시기는 하시면서도 그것은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이었다.²⁹⁾

특히 세조대왕은 자신의 몸에 퍼지기 시작한 부스럼뿐 아니라, 환청처럼 들리고 환시처럼 나타나는 악몽으로 곤혹을 치른다. 그것은 그가 왕위에 오를 때, 기존 세력 및 반대 세력을 피로 차단했던 과거의 과오에서 기인한다. 세조는 여러 대신과 조카인 단종을 죽였는데,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꿈에 나타나 세조를 고문하기 시작한다. 세조 역시 불심을 빌려 이 모든 업보를 이탈하고 악몽에서 깨어나고자 했지만, 관세음보살마저 험악한 영상으로 바뀌어 그를 억압하는데, 이는 조신의 경우와 같다. 그의 말대로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악업뿐이요. 무서운 추억과 무서운 꿈 뿐”(590)인 것이다.

<원효대사>에서 불심이 깊은 스님 원효는 악몽에 시달리지 않으나, 파계

29) <세조대왕>, 『이광수 전집 4』, 591-592면.

한 이유로 여러 차례 시험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 그 자신 스스로가 파계라는 허물이 끝없이 따라다님을 뼈아프게 생각한다.

원효는 자기가 이렇게 풀이 죽은 것이 파계 때문인 것을 알았다. … 원효는 그 어머니 산소 앞에 섰을 때에 그 산 속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자기에게 손가락 질하고 비웃는 것을 느꼈다. (파계승. 파계승. 히히히) 하는 것이다. (우리와 무엇이 달라.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귀신들이나 개나 뱀이나 버러지나 모두 원효를 저의 동류로 보았다. (웁은 말이요. 당신네와 다를 것이 없어. 욕심으로 움직이는 다 같은 중생.) 원효도 이렇게 자백하고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지 아니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네게 바친 공양을 도로 내어놓아라.) 어떤 중생은 원효에게 이렇게 요구하였다. … 원효는 이 모든 중생의 공양을 헛 받았다. 못 받을 공양을 받은 것이다. 보살인 줄 알고 그들은 원효를 공양한 것이었으나 무엇이냐, 원효는 한 파계승이 아니냐. (아아. 나는 못 받을 대접을 받았다. 그것은 내가 중생의 복을 도적질한 것이었다.) 원효는 가슴이 아프다.³⁰⁾

자신을 통제할 정신력을 잠깐 놓은 사이, 원효는 어머니의 묘 앞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귀신들의 손가락질을 의식한다. 귀신에 대한 영상과 잡음은 자신의 마음, 곧 수치심과 죄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동기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파계승이 된 자신에 대하여, 중생들의 기대를 저 버린 죄인이라 생각한다. 그의 죄의식이 불러낸 환청을 통해, 실격자로서 민중의 공양을 그저 받았다는 것에 자책하는 것이다. ‘파계승’이라는 귀신들의 조롱 속에 인간적인 번뇌에 빠졌던 원효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신력을 키우기로 한다. 궁극적으로 원효를 구속한 것은 파계이지만, 이 파계를 통해 원효는 일반 승려들과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간다. 그것은 철저한 자기 수련을 통한 인격의 완성으로, 그 자신을

30) <원효대사>, 『이광수 전집 5』, 삼중당, 1971, 442면.

끝없이 버리고,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마저도 버리고, 자만감의 경계를 철저히 한다.

또한 원효는 처음부터 요석공주에게 욕망을 가지지 않고, 단 사흘 만에 헤어진 채 방랑을 하며 중생 구제에 나선다. 그 와중에 요석공주보다 젊고 빼어난 아사기를 만나 그녀로부터 구애를 받기도 하나, 소유욕이 없는 원효는 이를 거절하고 함께 불도에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이는 <꿈>에서 조신이 달레로 인해 파계하고, 달레와 그의 딸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살인을 하고, 이를 추적하는 달레의 옛 정혼자 모례로부터 도망치는 등 끝없는 불안과 악몽 속에 시달려야 했던 상황과 대조적이다.

그런데, 이광수는 왜 이토록 구체적으로 악몽을 묘사했던 것일까. <그의 자서전>(1937)에서 이광수는 두 여인(마아가릿과 엘렌)과 함께 북경에서 머물 때, 세인들의 오해로 몰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 그 때 발생한 늑막염으로 사경을 헤맬 때 수차례 꾸었던 꿈들을 나열해 놓은 바 있다.³¹⁾ 막막한 생활 속에서 동포들에게 배척을 당했을 때 느꼈던 분함과 혼란은 그대로 흥몽으로 재현되었다. 이 악몽은 말 못할 번뇌와 수심이 많았던 이광수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로 인해 다시 자존심을 회복하고 중심을 잡기까지 지속된다.

해방 이후 이광수의 책상 위에 올라간 것은, 일장기도 태극기도 아닌 ‘불경과 성경’이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³²⁾ 특히 이광수는 불교의 윤리에 심취

31) “나는 이몽 가몽 잠이 들었다. 아마 께듯 한 달 그림의 자극이 스러진 때문일까. 그러나 잠만 들면 무서운 꿈이었다. 산속에서 길을 잃고 갈팡갈팡 헤맬 때에 이리로 가도 길이 막히고, 저리로 가도 길이 막히고 할 수 없이 절벽을 기어 올라 저것이나 넘어가면 살아날까 하고 애를 쓰나, 몸은 무겁고 팔다리는 힘이 빠져서 부둥부둥 애를 쓰는 꿈, 캄캄하고 숨이 턱턱 막히고 냄새 나는 굴속에 갇힌 꿈, 죽은 사람들이 뺨 둘러 서서 나를 위협하면서 이리 가면 이 길을 막고 저 길을 가면 저 길을 막는 꿈, 혹은 앓는 사람을 업고 물가로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는 꿈,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달이 반쪽이 나서 날라 내려 오는 꿈—대체 이러한 무시무시하고 가슴 답답한 꿈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흥몽들을 깨고 나면 또 전신에는 땀이 흘러 있었다”(〈그의 자서전〉, 『이광수 전집』, 삼중당, 1971, 411-412면).

32) 김윤식, 『<이광수>의 글쓰기와 <香山光郎>의 글쓰기』, 『작가세계』 여름호, 2003, 30면.

한 경향을 보였는데, 모든 것을 자신의 업보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것마저도 그의 가면이자 포즈일 수 있으나, 그의 번민은 참혹한 악몽으로 이어졌다. 이즈음에서 악몽을 꾸었던 이광수의 심경을 들어보기로 하자.

1) (隆熙 三年 十一月 十一日) 어젯밤 꿈이 우스웠다. 나는 朝鮮人을 煽動하였다는 罪로 死刑의 宣告를 받았다. 때는 午前인데, 刑의 執行은 午後란다. 나는 생각하기를, 죽는 것은 두렵지 아니하나, 오직 胸中에 품어 두었던 어떤 힘을 써보지 못하고 이 世上을 떠나는 것이 슬프다고 이 때문에 나는 괴로워하였다. 執行 當時의 모양을 想像하는 중에 喜報가 왔다 - 死刑은 中止한다고

(十二月 十六日) 밤에 재미있고도 무서운 꿈을 꾸었다. 아버지의 무덤이 열리며, 그 밑에 반듯이 누워 있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면서 어머니와 나를 잡으려고 한다. 나는 鄭君과 함께 혼이 나서 달아났다. 꿈에도 나는 생각했다. (응, 아직도 죽는 게 무서운 게로다.) 하고³³⁾

2) 나는 그 중에 가장 내 앞에 가까이 있는 무덤을 향하여, “네 무덤을 열고 나서라. 아무리 무서운 모양을 하였더라도 상관 없으니 어서 나서라. 나서서 내게 지운 빛을 말하여라. 내게 할 말을 똑바로 하여라고. 내가 네게 무엇을 잘못하였나? 내가 너를 때렸나? 네 재물을 빼앗았나? 네 사랑하는 사람을 범하였나? 내가 네게 무슨 원통한 일을 하였나? 아무리 무섭고 보기 흉한 꼴이라도 상관 없으니 어서 나서서 말을 해! 내가 갚을 것이며 갚아 주마. 왜 나를 이렇게 무섭게 하고 못 견디게 구나?” 그러나 그 무덤은 말이 없었다. 다만 메마른 흙에 겨우 뿌리를 박은 풀이 간들간들할 뿐이었다. 나는 모든 무덤을 향하여서 같은 소리를 하였다. 내게 원통한 일을 한 일이 있거든 어서 말을 하라고. 내게서 받을 것이 있거든 어서 받아 가라고. 그러고 나를 이렇게 무섭게 하고

33) <일기>, 『조선문단』, 1927.4(『이광수 전집 9』, 329면).

못견디게 하기를 그만두라고 실상 나는 몸뚱이를 천만 조각을 내어서 모든 빛을 다 갚아 주고 머리카락 한 올만 남더라도 좋으니 이 무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 문득 이러한 생각이 났다. (아니다, 아니야! 우주와 인생이 모두 다 아름다운 것인데 내 눈이 죄로 어두워서 이렇게 흉하게 무섭게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도 진리는 있는 것 같았다. 내가 흥역을 하는 것이다. 흥역을 할 때나 마마를 할 때에는 허깨비가 보인다.³⁴⁾

첫 번째 인용문은 그의 <일기>에 나온 소년시절의 악몽이며, 두 번째 인용문은 해방 전에 한창 친일협력의 노선에 들어갔던 무렵의 악몽이다. 특히 ‘조선전’을 다룬 중편과 제목이 동일한 단편 <꿈>은 친일행적이 악몽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스스로 변민하고 괴로워했던 흔적이 악몽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작품으로 일종의 심경토로에 가깝다. 그리고 해방 후의 악몽은 이쉽게도 앞서 다루었던 그의 소설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해방 후에 이광수가 자신의 악몽을 털어놓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이광수에게 악몽은 해방 그 자체였을 수 있다. 해방이 된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이 지향했던 민족운동이 실패로 끝났다는 현실과 대면해야 했다. 해방은 곧 그만의 애국의 논리가 중단된 순간이었으며,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의 상실을 의미했다.

위의 인용문에서 제시된 악몽은 공통적으로 죽음과 죽음의 무대인 무덤을 배경으로 한다. 꿈속에서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나 갑자기 무덤에서 튀어나온 아버지에게 쫓기는 꿈은 곧 죽을 위기에서, 아직 죽기 싫은 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가 중년이 되어 풀어놓은 악몽은 그 수위가 달라진다. 무덤가에서 있으나 귀신보다 무서운 침묵이 그를 제압하기 시작한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빈 방에 갇힌 것처럼, 그의 머릿속은 백지가 되고 일종의 패닉상태에

34) <꿈>(단편), 『문장』, 1939.7, 『이광수 전집 8』, 202-203면.

빠져든다. 그는 실체가 없는 소리와 형상이 그를 억누르는 환몽에 빠지는데, 이광수는 그 스스로 ‘말 걸지도 않은 말’에 대하여 자신을 질책하는 것이라 여기고, 자신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을 하라고 ‘암묵적인 죄’를 자인한다. 그것이 무슨 죄인지 죄명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는 ‘죄’에 대하여 의식하고 있다. 실체 없는 무한한 침묵은 그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것이라 그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느끼는 압박과 공포는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악몽이 곧 그의 두려움에서 나온 허깨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겁이 나는 것을 숨길 수 없다. ‘나와서 말을 하라’해도 되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발악”(204)은 처절한 실패로 끝나고,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이것을 ‘죄가 부르는 죄값’이라 생각한다. 죄가 있기에 아름다운 것도 공포로, 두려움으로, 악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해방은 곧 조선민의 황민화에 대한 그의 이상과 신념이 좌절되는 순간이었다. 이 순간 이광수는 죽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가 사릉에서 칩거할 무렵 <죽은 새>에 얽힌 일화나,³⁵⁾ 업보에 대한 의식은 일순간에 황폐해진 그의 말년을 보여준다. 그가 존경했던 충무공이나 도산처럼 애국을 하다 죽을 자리는 이미 놓쳐버린 뒤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자문해 볼 때, 그래도 민족을 위해 살고 죽으리라는 신념만큼은 비우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3.2. 은폐된 ‘나’의 실체와 민족을 향한 사랑의 호소

이광수는 조선의 민족이 일본의 민족과 같이 되고, 그들보다 더 나아가

35) 다음은 그 일부이다. “나는? 나는 왜 사람이라는 이 몸을 타고 났나? 내 목적은? 내 사명은? 지난 일을 돌아 보면 알지 못하는 어떤 힘에 끌려서 웃고 울고 헤맨 것만 같다. 내 뜻대로 된 일이 없는 것만 같다. 앞으로 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거니와 그 날들이 어떤 모양으로 지나갈 것인가?”(<죽은 새>(『돌베개』), 1946, 『이광수 전집 8』, 276면)

최종적으로 세계민족의 모범이 되는 ‘교사로서의 조선민족’이 되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곧 민족의식을 교사정신과 결합시켜 놓은 것이다. 이러한 진화론적/상대론적 구조 속에서 약소한 민족은 자력 강생할 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불결한 것은 청결하게, 못한 것은 잘나게, 추한 것은 아름답게, 악은 선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은 실로 엄청난 수양때로는 수행),³⁶⁾ 그리고 용서와 포용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³⁷⁾ 민족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사랑이라고 보았다. 사랑만이 민족을 구제할 수 있는 원동력이며, 심지어는 인류가 멸망할 위기에서도 인류의 존속을 약속해 줄 수 있는 생명수라 보았다.

해방 후 발표된 이광수의 장편인 <도산 안창호>(1947)와 <사랑의 동명왕>(1949)에는 휴머니즘에 가까운 사랑이 구현되어 있다. <도산 안창호>에는 도산의 일대기와 활약상을 바탕으로 그의 정신인 무실역행과 애국사상에 대한 의지가 고취되어있고, <사랑의 동명왕>은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켜 놓았다. 각각 기념비적 전기로서 혹은 통속적인 시대극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민족을 자기 몸과 가족보다 더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해야 했던 지도자의 위치에 놓인 도산과 동명왕의 운명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광수는 수필 <사랑의 길>에 이어 기타 산문에서도 이제 민족에게 남은 것은 더 이상 속고 속이는 사기술이 아니라,³⁸⁾ 서로 믿고 상생할 수 있는 화합

36) 이광수 친일소설 가운데 <그들의 사랑>에 나오는 ‘원구’는 이광수의 분신과 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내지인의 조선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과 완벽한 “일본국민”이 되는 것이 곧 “조선민족”을 위하는 것이라는 그의 논리는 작품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이경훈 편역,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 평민사, 1995, 146면).

37) <인생의 향기>에 실린 <罪>의 일화는, 같은 혈족이 서로 용서를 하지 못할 때, 복수가 또 다른 복수로,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비극적으로 귀결되는 ‘가족사 전멸의 비극’을 보여준다. 이광수는 이 사례가 자신이 본 “罪에 關한 가장 深刻한 印象”이라 말한 바 있는데, 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벌이 주어지는 것이 원리원칙이나, 죄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준다(<인생의 향기>, 『사해공론』, 1936.9, 『이광수 전집 8』, 270면).

의 길을 여는 것이라 말한다. 이광수가 마지막에 기대고자 했던 것은 사랑에 대한 호소였다. 다만 이광수가 자신이 초극할 수 없었던 부분, 고백할 수 없는 진실로 괴로웠던 부분에서의 ‘나’를 철저히 은폐시키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광수의 <일기> 가운데 <신중일기>를 보면, 그가 부처의 그늘 아래에서 “예불·송경·좌선”³⁹⁾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그가 기억하는 부모의 죽음과 아들의 운명을 생각하는 것 외에 마음의 짐과 슬픔을 드러내는 부분은 없다. 심정적으로 진 빛은 많으나, 현실적인 면에서 해방 후의 세태를 바라보면,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양심에서의, 본분에서의 해방”된 듯이 자기 일을 있고 무질서하다.

해방 끝 무렵의 작품들은 외압에 의해 중단되거나 거의가 미완에 그치고 말았는데, 그 중에서 <서울>에 나타난 해방 후의 민족세태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은 민족운동의 본질을 잊고 향락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을 향해 있다.⁴⁰⁾ 또한 미소양국의 개입으로 얻은 해방에 대한 불안과 해외에 망명해서 펼쳤던 민족운동의 취지가 소멸되어가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들어있다.

김동인은 이광수의 <무정>을 평하면서, 그의 작품에서 “민족애라는 것이 또한 이 작자의 향유 쓰는 武器이니, 대개가 억지로 의식적으로 삽입하여 작품의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은 기괴한 느낌을 주는 것”인데, 다른 작품에서와 달리 “적절한 삽입”을 한 것이라 말한 바 있다.⁴¹⁾ 이는 지금까지 해방 전후의

38) 이와 관련하여 <돌베개>에 실린 수필이 주목된다. 다음은 그 중 일부이다. “요새는 공도로 되는 것이 하나나 있어요? 모두 험잡이지요, 야미구요.” 하였다. 나는 이 소년에게 이러한 선입견을 넣어 준 어른들과 우리들과 우리의 사회 상태를 원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만일 소년들이 많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 어찌하면 이 소년의 마음에서 이런 무서운 편견을 빼어 내일 수가 있을까. 실로 무시무시한 큰 문제다 (<서울열흘>, 1946.10-1947.2)(<돌베개>, 『이광수 전집 8』, 309면).

39) <일기>, 『돌베개』, 1948.6(『이광수 전집 9』 342, 346면).

40) <서울>, 『태양신문』, 1948(『이광수 전집』, 514면). “그는 저마다 제 욕심을 채우려고 싸우는 것이 인생이라는 철학을 가진 것이었다. 애국이니 민족이니 민족을 위한 봉사니 자기 희생이니 하는 것은 말치레라고 밖에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이광수 문학의 일반을 살펴보아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의 관심사가 ‘민족’에 놓여있었으며, 어떠한 방식에서든 민족의 문제를 의식하고 삼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광수가 진정으로 민족의 실리에만 놓이고, 민족의 장래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민족에 대한 자의식만큼은 강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문학적 흑백기로 채워진 친일행적의 시기도 ‘어긋난 방식’으로의 민족애⁴¹⁾였는지도 모른다. 해방 후에 그가 대면했던 민족은 과거 10년대, 20년대로 돌아갈 수 없는 퇴색된 민족의 기억과는 엄연히 달랐다. 더 이상 이들에게 개조나 수양을 말할 수 없었고, 단지 ‘나’를 뺀 소설만을 쓰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민족에 대한 논설은 늘 논란을 일으켰고 민족으로부터 배제를 당한 이광수에게 해방 후에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리 피를 빨리고 가려움과 아픔을 받아도 그 몸을 벗어 놓기 전에는 면할 수 없는 빛”⁴²⁾뿐이었으며, 이를 초극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불심과의 공명뿐이었다. 그의 자서전과 업보에 대한 구원을 염원하는 소설들은 민족의 테두리에서 외곽으로 밀린 변방의 자아가 마지막 으로 호소하는 민족에 대한 사랑이었다.

4. 결론을 대신하여

기존의 연구사에서 해방 이후 이광수 작품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이광수의 작품이 전체적인 문학의 지형도에서 가장 침체되었으며, 문학계의 중심이었던 인물의 급작스러운 퇴장공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에 남긴 이광수의 대표

41) 김동인, 「춘원연구」, 『김동인 전집 6』, 삼중당, 95면.

42) 「나는 바쁘다」, 丁亥, 6.28(『이광수전집 8』, 280면).

적 저작으로는 <나>, <나의 고백>, <꿈>, <돌베개>, <도산 안창호>, <사랑의 동명왕> 등이 있다. 이들 작품 중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나의 고백>이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외 수필집 <돌베개>와 소설들은 각각 장르적 특성에 따른 평가를 받았을 뿐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작품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해방공간에서의 이광수 문학의 특성을 조명해보고자 했다.

이광수에게 ‘민족’은 아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스승이나 후원자의 영향관계 속에서 생성된 관념이었으며, 그 스스로 기대고자 했던 안식처이자 자기희생을 전제로 한 애국을 실현할 수 있는 자기욕망의 대상이었다. 이광수는 스스로 자신의 소설들을 가리켜 민족정신을 밀포장한 것이라 말한 바 있는데, 그의 작품들에는 당연한 회귀점으로서의 민족이 항상 들어가 있다. 그것은 조선인의 민족성이나 민족운동 그리고 민족의식에 대한 수양 혹은 수행 등의 계몽적인 성향의 교사소설이라 할 수 있는데, 일종의 민족적 정신의 고양이 그의 소설의 핵심이었다.

그의 문학은 시기별로 10년대의 지덕체(智德體)와 정(情)의 논의와 20년대의 개조(改造)와 수양(修養)의 논의 그리고 30년대의 수행(修行)의 논의로 압축되는데, 40년대 이광수 문학은 해방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행로를 보이게 된다. 그 다름은 곧 ‘훼손되었던 이광수 문학’과 이에 대한 ‘자의식과 죄의식 사이의 경계’로 나타났다.

해방 후의 이광수를 지배한 것은 친일행적에 대한 자의식과 번민이다. 이 친일행위에 대한 회고는 <나의 고백>에서 뿐이지만, 「나」에서 과거의 간통에 대한 고백이나 <꿈>에서의 끔찍한 악몽의 묘사는 말할 수 없었던 그의 죄의식을 보여준다. 따라서 해방 후 이광수 문학의 고찰을 위해서는 해방 전까지 아울러서 살펴보아야 한다. 즉 해방 후 그의 문학은 해방 전 행위의 인과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이광수는 친일을 조선 민족의 수난을 덜기 위한 자기희생적 결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광수는 조선민족이 일본민족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 진정한 아마도 민족이 되어야 할 것을 논한 바 있다.

이러한 사고는 내선일체나 대동아공영권에 대한 협력이라는 비열한 친일행위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광수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민족론에서의 확장이자 발전론이었다. 즉 조선민족은 보다 강한 민족으로 개조되어야 하며, 그 표준이 되는 모델로서 일본 민족이 제시된 것이다. 이광수는 끝까지 변절의 시기에서도 지사로서의 면모를 버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애국지사에서 황국지사’로의 변절은 ‘지사가 지향하는 민족애’로 통합되는 것으로, 자신의 변절을 변절이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합리화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친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분열이 발생한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자신이 조선민족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그는 창씨개명을 해도 일장기를 내걸어도 일본 민족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민족의 테두리 안에서 조선민족의 비판적인 시선을 받아야했던 것이다. 이는 특히 해방이라는 현실이 찾아왔을 때 더욱 극명해졌다.

이광수에게 해방은 곧 그의 악몽이었다. 그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민족으로의 변신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그의 모든 민족적 사업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그는 반민특위법에 의해 민족적 재판을 받았으며, 풀려난 뒤에도 ‘풀리지 않은 혐의’로 인한 적대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나 민족으로 인해 악몽을 꾸 뒤에도, 그에게 남은 것은 민족뿐이었다. 민족의 이름 속에서만 그가 걸어온 길이 있었으며, 살아갈 길이 있었다.

이광수는 황폐해진 그의 말년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사랑을 강조한다. 이 시기에 집필한 <도산 안창호>나 <사랑의 동명왕>에는 민족 간의 화합과 사랑이 강조되었다. 해방 후 통제되지 않은 사회의 무질서함은 시민들 간의 사기와 범죄를 유발하기 쉬웠다. 해방이 되어도 치열한 생존경쟁의 사정은 변화하지 않았다. 이광수는 이러한 서울의 세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해방 후에 민족을 통솔할 이상적인 지도자로서 안창호와 동명왕의 신화를 재현해낸 것이다.

요컨대 이광수에게 민족은 시기별로 다변할 수 있는 유동체였다. 민족은

수양을 거쳐, 때로는 수행을 통해, 그리고 화합의 원리에 따라 통제되고 통합되어야 할 대상이었고, 그는 이러한 민족계획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그의 이상은 그의 작품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민족 프로젝트의 목적성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만의 정신세계, 즉 번민과 자의식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도하게 확장되어 나열된 것 같아도, 철저히 은폐되어 있었다. 그가 두려워했던 부분이나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침묵과 많은 공백을 남겨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순과 비약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그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사실의 혼동이나 위장이라는 비판을 받게 했다.

이광수는 이러한 민족사업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중압감과 번뇌를 그의 수필이나 소설 혹은 자서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표출하였는데, 그 원인과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해놓지 않았다. 다만 그가 스스로 강한 자의식속에서도 죄의식을 느끼기도 했으며, 반성이나 후회를 보이지 않는다는 말 속에서 많은 망설임과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하는 심리적 유약함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약한 지식인의 약점을 보였던 이광수와 그의 민족 사업은 진정한 자기희생을 전제로 한 애국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한 민족에로의 투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기 논리성을 상실한 희생의 논의와 애국의 방법은 결국 이광수 자신을 파편화시켰다. 해방 후에 더욱 극명해진 그의 민족사업의 실체는 민족이 없는 민족운동, 민족의 호응을 받지 못한 ‘자기만의 운동’이었다. 강한 자의식으로 점철되었던 이광수의 정신세계는 ‘그가 추구해야 할 민족의 상’까지 만들어냈던 것이다.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이상체로서의 민족과 민족을 위해 펼쳤던 사업은 실패로 끝날 예정된 운명이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이광수 전집』, 삼중당, 1971.
『김동인 전집』 6, 삼중당, 1976.

2.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13, 2000.
김삼웅 외 편집, 『무크·친일문제연구3』, 가람기획, 1995.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솔, 1999.
마루야마 마사오, 『현대정치와 사상과 행동』, 한길사, 1997.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Ⅱ』, 평민사, 1995.
_____,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 평민사, 1995.
李丙壽 외, 『解放二十年史』, 希望出版社, 1965.
정운현, 『잃어버린 기억의 보고서』, 삼인, 1999.
최주한, 『제국 권력에의 야망과 반감 사이에서』, 소명출판, 2005.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해방 60년의 한국사회』, 한울, 2005.
한승욱, 『이광수』, 건국대 출판부, 1995.
허재일·정차근, 『해방전후사의 바른 이해』, 평민사, 1991.
허중,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선인, 2003.

3. 논문

- 곽은희, 「황민화의 환상, 오도된 계몽」, 『민족문화논총』 제31집, 2005.
권혁웅, 「이광수 소설에 내재한 친일의 논리」, 『어문논집』 39, 안암어문학회, 1999.
김동명, 「일본 제국 지배하 이광수의 민족정체성: 문명한 민족에서 황국신민으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예림, 「이광수의 미 이념」, 『작가세계』 여름호, 2003.
- 김윤식, 「<이광수>의 글쓰기와 <香山光郎>의 글쓰기」, 『작가세계』 여름호, 2003.
- 김재국, 「춘원의 민족주의 한계」, 『어문논총』 제11집, 1995.
- 박찬승, 「20세기 한국 국가주의의 기원」, 『한국사연구』 117, 한국사연구회, 2006.
- 심원섭, 「이광수의 菩薩行 誓願과 親日의 問題」, 『翰林日本學研究』 제7집,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2002.
- 이경훈, 「춘원의 친일문학 연구」, 『비교문학』 제8호, 1994.
- 이동하, 「이광수와 채만식의 해방기 작품에 대한 연구」, 『배달말』 제16호, 배달말학회, 1991.
- 이준식, 「일제 강점기 친일 지식인의 현실 인식」, 『역사와 현실』 37, 한국역사연구회, 2000.
- 조관자, 「‘민족의 힘’을 욕망한 ‘친일 내셔널리스트’ 이광수」, 『당대비평』 특별호, 2002.
- 최주환, 「1930년대 전반기 이광수의 지도자론과 파시즘」, 『어문연구』 제35권, 2007.
- 황병주, 「전시 체제가 이광수의 전쟁 · 국가 인식과 식민 담론」, 『TRANSTORTA』 제3호, 박종철출판사, 2003.
- 元容鎮, 「1945年 8月 15日 朝鮮의 미디어」, 『メディアにおける 終戦 · 敗戦 · 解放』(國際シンポジウム), 東アジアメディア産業研究, 2006.

■ 영문초록

The Meaning of Nation in Yi Gwang-su's Fiction

Roh, Yeon-sook

After the liberation, Korea went through stages to become a strong nation state. The first stage was to remove the vestiges of Japanese imperialism and punish the pro-Japanese. In this process, Yi Gwang-su was identified as pro-Japanese and was arrested. I will deal with the meaning of nation, focusing on the fact that his literature after liberation is distinguished by being self-conscious about his pro-Japanese actions. By investigating his frustrated will to administrate a nation by the nation discourse and by collecting the remaining pieces which are left from his ideal world, I hope to clarify the meaning of 'nation', which has not yet been described clearly.

Yi Gwang-su was willing to justify his pro-Japanese actions with his own logic in *My Confession*. But there are many inconsistencies in his thoughts that the cooperation for Japan was the only way to lessen national difficulties and to get a good chance to improve national development. Accepting the stage of liberation, Yi Gwang-su asserted that his actions had been a sort of sacrifice for the people of Chosŏn.

However, he did not get free from a sense of shame. It is very suggestive that he referred to adultery as a part of the recording of disgrace. In *I* (1948), Yi Gwang-su wrote his memory that he committed adultery with Moon's sister. Being Pro-Japanese is a kind of 'national adultery' and has a common point in the action following his desire, although the one is a national, while the other is a private problem. The actions is to betray another and to throw away its realm (wife and Chosŏn). Instead of an apology for his collaboration, confessing his adultery which nobody scolded him for

shows a delicate irony. He confessed his fatal mistake that he could not control himself quite some time after it had happened. A confession about collaboration would have demanded an even longer time.

In the short story *Dream*(1939), Yi Gwang-su could not hide terror although he knew that his nightmare was an illusion. Although he did not spell the name of any crime, this shows that he felt the critical eye of the nation resting upon him because of his collaboration with the Japanese. In reality, the biggest nightmare of Yi Gwang-su was maybe the liberation itself. In the moment of liberation, he lost all things and had to face reality and therefore the fact that his national movement had failed.

It is well known that Yi Gwang-su's literature deals with nation generally and shows that the center of his interest lies on the destiny of nation. There was nothing that he could lean on after liberation. There remained only sympathy with Buddha's love. His fiction, which represent his biography and wish for relief about retribution for the deeds of a former life, shows the love for the nation, which he as an outsider from national border appealed to, finally.

Key Words : Yi Gwang-su, Adultery, Pro-Japanese, Nightmare, Love, Nation

접수일자 : 2008.10.28

심사기간 : 2008.11.10-11.30

계재결정 : 2008.12.1